



# 전략 소식지

3권 12호  
2017년 12월

## 11월 주요활동

### 미 대통령 국민 방한



미 대통령 방한 모습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13일간의 아시아순방 일환으로 11월 7, 8일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도착 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오산공군기지에서 미 육군 험프리스기지로 이동했다.

이들간의 방한기간중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으며,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다. 동 연설에서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의독재자 김정은에게 미국의 의지와 힘을 오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정권은 과거 미국의 자제력을 유약함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치명적인 판단착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오늘 나는 북한에 한 • 미 양국뿐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신해 말한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번영, 우리의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국들이 협박당하거나 공격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도시가 파괴위험을 받는 것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죽음으로 지킨 이땅에 역사상 최악의 잔혹이 되풀이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령관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사령부 빈센트 K. 브룩스 대장과 스티븐 L. 페이튼 주임원사가 지상군구성군사령관 김병주 대장과 함께 워파이터 연습 (WFX) 18-2 기간중 2017년 11월 10일 1군단 사령관 개리 볼스키 1군단사령관과 사령부 주임원사 윌터 타갈리케르의 안내로 캠프 호비에서 1군단 지휘소 “전장 순시”를 실시했다. WFX 18-2는 기계화된 연습일정의 일환이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육군 상급 사령관들이 최신의 적절한 전투역량, 합동 원정임무 지휘 본능과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훈련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합훈련은 한미간의 오랜 군사 파트너십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유엔군사령부, 북한 귀순병에 대한 조사 완료

유엔군사령부는 11월 20일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 귀순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보기)**

11월 13일, 북한군 한명이 JSA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왔다. 그는 한국과 북한의 실질적인 국경선인 MDL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해 접근해 오다가 차를 버리고 다른 북한군들의 사격을 받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 왔다. 이 북한군 병사는 JSA 남쪽 건물옆에 은신해 있다가 한국군과 미군에게 발견된 후 치료를 위해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나 미군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의 특별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은 JSA 내에서 MDL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추격하던 북한군 한 명이 잠깐이지만 MDL을 침범하는 등 최소한 두 차례 유엔 정전협정을 위반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JSA경비대대 요원들이 적절한 조치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고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빈센트 K.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의 대응은 비무장지대를 존중하고 교전 발생을 방지하는 정전협정에 부합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으며, 본 사건은 정전협정에 대한 도전이었으나, 현재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조사를 담당한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단은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미국 인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위덴과 스위스 인원들이 조사과정을 지켜보았다.

## 11월 주요 방문객

사령부와 우리의 임무 및 부대원들에 대해 알리고 견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다. 다음은 지난달 사령부를 찾아 주신 고위급 방문객이다.

-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클레어 퍼리, 주한 뉴질랜드대사
- 야수마사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
- 마이크 코프먼, 미 하원의원 (공화당-콜로라도)/하원 군사위원회
- 마이클 로저스 해군대장, 미 국가안보국
- 로버트 브라운 육군대장, 미 태평양육군 사령관
- 제임스 맥켄빌, 육군대장, 미 육군참모차장
- 스콧 밀러, 육군중장, 미 합동특수전사령관
- 토드 세모나이트, 육군중장, 미 육군공병대 사령관
- 폴 나카소네, 육군중장, 미 육군사이버사령관
- 조셉 오스터만, 육군중장, 미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
- 마크 세드윌, 영국 국가안보보좌관